선현미담

한국 최초의 화약 무기 발명가, 최무선

나이
- 어린이(6~9세)

주제
- 목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성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주제: 노력, 끈기

핵심어
- 노력, 끈기, 최무선, 불꽃놀이, 화약, 용기, 해적, 고려

한국 문화
- 목표: 불꽃놀이가 옛날부터 어떤 행사와 축제에서 사용되었는지 알아본다.
- 요소: 불꽃놀이

한국어
- 목표: 동사 '발명하다'의 의미를 배우고 활용한다.
- 단어: 발명하다
- 표현: 나는 _____(을/를) 발명하고 싶어요.
  이 발명은 _____에 도움이 돼요.

✿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한국 최초의 화약 무기 발명가, 최무선'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꽃놀이를 좋아하나요? 불꽃은 화약으로 만들어요. 고려시대에 하늘에서 펑펑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고 '나도 화약을 만들어서 무기를 발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똑똑한 소년이 있었어요. 당시에 화약은 중국에서만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직접 화약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소년은 어른이 되어 마침내 화약을 만들고, 화약 무기를 발명했어요. 그가 어떻게 화약 무기를 발명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한국 최초의 화약 무기 발명가, 최무선'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고려시대에 최무선이란 아이가 살았어요. 무선이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똑똑했어요.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선아, 같이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가자꾸나."

아버지는 무선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펑! 퍼펑! 펑!"

캄캄한 하늘 위로 화려한 불꽃이 수를 놓은 듯이 빛났어요. 불꽃놀이는 무척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불꽃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무선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불꽃은 화약으로 만든단다. 그뿐만이 아니야. 화약으로 강한 무기도 만들 수 있단다. 화약으로 만든 무기는 아무리 큰 배도 한 번에 불태울 수 있지."

"정말이요? 굉장한걸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무선이는 화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고려에는 화약을 만드는 재료가 없었어요. 만드는 방법도 알 수 없었지요. 화약은 중국 사람들만 만들 수 있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음, 언젠가는 내가 꼭 화약을 만들고 말겠어.'

무선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최무선은 어른이 되었어요. 나랏일을 하는 벼슬에도 올랐어요. 최무선은 전쟁에서 쓰는 무기, 깃발, 갑옷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최무선은 일하는 틈틈이 잊지 않고 화약 만드는 법을 연구했어요.

어느 날, 최무선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했어요.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란 최무선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일본에서 쳐들어온 해적들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과 값진 물건을 몽땅 가져가고 사람들도 마구 때려요."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더 괴롭힘을 당해요."

최무선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반드시 화약을 만들어서 무기를 발명하고 말겠어. 그 무기로 일본 해적들을 어서 물리쳐야 해!'

하지만 여전히 화약 만들기는 쉽지 않았어요. 고려에서 화약에 들어가는 재료를

이야기 들려주기

찾기란 무척 힘이 들었지요. 또 그 재료들을 구한다 해도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낼 수도 없었어요.

최무선은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올 때마다 갖은 수를 써서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나라의 비밀이라며 절대 알려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최무선은 혼자 재료들을 구해 화약 만드는 실험을 하다 크게 다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최무선을 나무랐어요.

"제발 실험 좀 그만하시오.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쩔 거요?"

하지만 최무선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화약 만드는 곳에서 일한 적 있는 이원을 만났어요. 최무선은 이원에게 마음을 다해 부탁했지요.

"화약이 있어야 하오. 더는 일본 해적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켜보기 힘듭니다. 제발 화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이원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최무선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부탁하고 또 부탁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최무선의 마음을 이원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이원은 최무선에게 화약 만드는 법을 알려 주었어요.

최무선은 그 방법을 듣고 단순히 따라 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스스로 연구해 온 것과 연결 지어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방법들도 활용했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으하하, 드디어 됐다! 됐어!"

마침내 최무선은 왕과 신하들 앞에서 화약을 선보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최무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무선의 화약은 '펑, 퍼펑, 펑!' 우렁차고 힘차게 터졌지요.

"우아! 세상에! 화약을 만들다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요.

화약을 만들어 낸 최무선은 화약으로 다양한 무기들도 발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본 해적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어!"

최무선이 만든 화포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어요. 커다란 배를 끌고 쳐들어왔던 일본 해적들은 화들짝 놀랐지요.

"세상에! 고려에 저런 무기가 다 있었나? 어서 도망가자!"

그 후로 일본 해적들은 고려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끈질기게 노력한 최무선 덕분에 이후에도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있었지요.

✿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최무선은 일본 해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네, 화약을 만들고 화약 무기를 발명했지요. 최무선은 한국 최초로 화약 무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발명'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처음으로 생각해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해요. 이순신이 거북선을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지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발명해 보고 싶나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최무선이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화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그래요. 아버지와 같이 본 불꽃놀이였지요. 친구들은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나요? 하늘에 펑펑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불꽃놀이는 지금도 큰 축제나 나라의 기념일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어떤 행사와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불꽃놀이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한국 최초의 화약 무기 발명가, 최무선'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고려시대 최무선은 아버지와 불꽃놀이를 본 뒤 화약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른이 된 최무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화약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지요.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법으로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최무선이 발명한 화약 무기 덕분에 일본 해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최무선처럼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